

# 사람 속에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 사람 속에는 서로 다른 두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있다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중국의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확한 말씀입니다. 즉 자신을 알고 마귀를 알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 속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사람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이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나라는 의식은 마귀인 고로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천당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마귀의 사람인지 하늘의 사람 인지를 분별해서 알아보려면 마음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교활하고 항상 이중적인 성격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입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은 마귀의 사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역시 마귀 사람이 중심이 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사람이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 빨리 마음을 바꿔서 하늘의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귀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가려고 하면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제단을 나와도 마귀의 사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단을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반면, 하늘의 사람은 항상 희생적인 마음이 마음 바탕에 깔려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희생적인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마귀를 속여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잘 아느냐 하면 바로 구세주는 완전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는 모르는 것이 없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사람이 되었고 마귀의 마음을 이루고 있는 것이요, 구세주는 속는 적하는 거지 속는 게 아닙니다. 속는 적하는 겁니다. 마귀

를 속여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마귀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속일 줄 모르면 절대로 마귀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귀를 잘 속였기 때문에 이긴자가 된 것입니다. 마귀를 속일 줄 모르면 절대로 이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세주가 겉보기로는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마귀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을 구분 못하겠어요?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한테만 이슬성신을 부여 주지 마귀의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부여줍니다. 마귀의 사람한테 부여 하면 그 사람이 그냥 죽어 버립니다. 마귀를 죽이는 이슬성신인 고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마귀의 사람한테는 안 부여주고 하늘의 사람한테만 이슬성신을 부여줍니다. 아시겠습니까?

## 神분별을 잘해야 이긴자가 된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신(神)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긴자가 됐지 신(神)의 분별을 잘하지 못했으면 이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 만날 때에도 이 사람이 마귀의 사람인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해서 접촉을 해야지 그것을 분별도 안하고 접촉을 하다가는 마귀한테 도리어 삼킴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마귀를 분별해서 알았습니다. 23살 때에 제주도 훈련소 훈련병 시절에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도둑질하는 현장을 보지도 않았음에도 도둑놈의 영의 냄새를 맡아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장을 비롯하여 전우들이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귀신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알까 궁금하게 생각했지만 끝내 이 사람은 그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립니다. 마귀를 항상 속여야지 솔직하게 얘기했다가는 마귀한테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속인 겁니다. 스물 세 살 때에 바로 이 사람이 죄 짓는 것을 구분해서 알았습니다.

## 전도관때부터 매일 예배를 봤다



구세주 조희성님

이 사람이 영모님으로부터 육중발령을 받고 온양전도관에 가니 교인이라고는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매일 새벽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매일 새벽제단을 쌓으니까 매일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를 보라고 다니엘서 12장에 써어 있습니다. '매일 도리는 번제를 폐하면 멸망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전도관 때

부터 매일 새벽예배를 봤던 것입니다. 소사신양촌에 살 때는 오만제단에서 새벽제단을 매일 쌓았었고 온양제단 전도사로 있을 때에도 매일 새벽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온양전도관 교인 세 사람은 다 병든 환자였습니다. 그 환자들이 전부 은혜를 받고 깨끗이 나오니까 불이 불어 열심히 전도를 하여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여섯 명이

되고, 열두 명이 되고, 스물네 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석달 만에 삼백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도관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 전도관 전도사 시절에도 이슬 은혜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전도관 역사상 전도사가 예배 인도를 할 때에 이슬성신 내린다는 것도 온양제단에서만 있었던 일이지 다른 제단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온양 전도관에 모인 삼백 명이 불이 불어 온양 시내 전체를 울릴 정도가 되니 온양에 사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다 몰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흥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영모님은 육중에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유재창 전도사를 부흥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할 때에 찬송 인도는 이 사람이 하고 설교는 유재창 전도사가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재창 전도사가 설교를 할 때에는 교인들이 절반 이상이 다 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찬송 인도 할 때에는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유재창 전도사가 그것을 보니 설교할 맛이 안 나서 이 사람보고 "찬송 인도를 계속 하십시오. 조전도사님이 찬송인도를 하면은 식구들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찬송을 부르다가도 내가 설교하면 꾸벅꾸벅 조니 내가 어찌 설교를 하겠습니까?"하고 말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온양 전도관에서 은혜가 내린다는 소문이 천안, 둔포까지 나서 전부 온양전도관까지 예배보러 왔습니다. 그러자 당시 천안전도관의 최성택전도사가 이 사람을 굉장히 미워했는데 바로 그가 협회의 선우당 간사한테 가서 이 사람을 다른 데로 발령을 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영모님이 직접 발령을 했던 사람인 고로 이제 협회 간사가 다른 데로 마음대로 발령할 수 없었습니다.

영모님이 석방될 때에도 전도관 전도사 200명이 모인 가운데 이 사람이 대표로 기도와 예배인도를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배 인도를 하면 은혜가 되거든요. 전도사들이 은혜가 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은혜가 되는 걸 알겠죠. 그래서 전도사들이 다 이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 친구 가운데 통일교의 문복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 사람이 예배 인도만 하면 은혜가 되고 하니 은혜자라는 걸 알고 승리제단이 자기네들이 반대하는 종교임에도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기쁘고 좋으니까 가끔 찾아 왔던 것입니다.

## 하나님의 신이 빛으로 인간들의 마음을 환히 들여다 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된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솔직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해도 진정으로 사모했지 그냥 어설픈게 사모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도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보아도 은혜창과가 됩니다. 그 제단 전체가 은혜창과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이 사람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전체 다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의 사람인 양심의 사람이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진심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체를 바치면서 움직일 때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인색하고 하나님한테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기울이는 척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요 성경에 써어 있듯이 하나님의 신이 빛을 발하는 고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 조희성님의 발자취



# 의인을 키우는 밀실 생활

해와주님께서는 밀실 식구들의 각자 마음과 생각 돌아가는 것들을 일일이 지적하셨다. 또 손을 펴시고 기운을 부으시면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었다.

처음 밀실에 들어가니 새로 온 사람이라 하여 독방을 주고, 텔레비전도 사주고 대우를 잘 해주셨다. 어느날 저녁때가 되어 세상 돌아가는 일이 궁금해서 텔레비전을 켜고 화면을 보려니 눈알을 비늘로 콧코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와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텔레비전을 더듬어 스위치를 끄고 난 후, 해와주님께 가지고 가서 "눈이 아파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하며 반납했다. 그러자 해와주님께서 "아니 벌써 텔레비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 하며 미소를 띠면서 받아주시는 것이었다.

새로 온 사람이라고 식사를 할 때는 이 사람 혼자만 쌀밥을 주고, 오랫동안 밀실에 있는 형제들은 다 보리밥을 먹었다. 특별히 대우받는 것이 싫어 "저도 보리밥을 주세요."하고 말하여 보리밥을 먹기도 했다. 또, 다른 형제들은 다 중노동하는데 이 사람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저도 노동을 하

게 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여 밀실 식구들과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랫동안 막일을 해 보지 않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새로 온 식구라 하여 특별대우를 받는 것도 잠시, 밀실 본연의 목적이 되는 의인을 키우는 밀실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해와주님께서는 밀실 식구들의 각자 마음과 생각 돌아가는 것들을 일일이 지적하셨다. 또 손을 펴시고 기운을 부으시면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었다. 해와주님은 마귀를 무저항(無抵抗)으로 쓸어 넣는 기도와 함께 무서운 능력을 생생히 행하고 계시는 것이었다.

해와주님께서 일러주신 새로운 기도로써 '헐기 마귀 뿌리째 뽑아서 무저항!' 이라고 기도하면 헐기 마귀가 무저항에 쓸려 들어가며, 또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살인 마귀 뿌리째 뽑아서 무저항' 하면 못마땅한 마귀가 무저항에 쓸려 들어가는 것이 영의 눈이 뜨



산을 개간하는 정도령님

인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었다. "마귀를 무저항에 던져 잡고 천 년이 채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천 년이 지나 마귀를 불가불 잠깐 놓아 주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천년성을 두르게 되어 있으며, 천년성을 두르고 있는 마귀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와 멸한다.'는 성경 계시록 말씀 그대로 마귀를 무저항에 쓸어 넣는 일을 해와주님께서 실제로 행하고 계시는 것이었다.

밀실 안에 있는 남자들 중,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은 전봉국 집사였고 그 다음이 50세가 다 된 이 사람이었다.

그 외에는 아들 정도 되는 20대 젊은 청년들이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들이 먼저 왔다고 해서 고참 행세를 하였다. 밀실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4 숫자라고 하고, 유독 이사람 혼자만 5 숫자라 하여 막내동이 취급을 하는 것이었다. 밀실에서는 크고 작은 할 일이 많이 있었다. 그때마다 이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종 부리듯이 하였다. 이 사람은 해와 주님의 깊은 사정이 나를 죽이고 자존심을 버리고 눈길로나 입술로나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고로 어린 아이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랐다. 인적 없는 산 속에서의 생활이었지만, 일정한 틀 안에서 생활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죄와 상관없는 의인을 만드는 역사를 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를 죄를 짓지 않으며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기를 쓰는 남모르는 속사람과의 처절한 투쟁의 생활이었던 것이다. 어

떤 때는 밀실에 있는 형제의 가족 중 초등학교 어린이도 몇 명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의 꿈에 5자가 거꾸로 보이던 조사가장이 자유율법을 지키다가 떨어졌다고 해와주님께서는 야단을 치고 펄쩍 뛰시며 통곡을 하시는 것이었다. 5숫자는 이 사람의 대명사인 고로 이 사람도 땅바닥에 주저앉아 같이 목을 놓고 울었다. 해와 주님 말씀대로 흠과 티가 없는 의인이 되기 위해 일초도 사되고 잠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며 몸부림치는 수도생활이 계속 되었다. 어쩌다 과거를 생각하면 해와주님은 즉각 알아채시고, 불러다가 욕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두목마귀를 휘두르고 하셨다. 어떻게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때서야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용서를 하셨다. 일초 일초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위태위태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또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는 날이 계속 되었던 것이다.\*